

C-12. Maxillary Sinus Floor Lift에서 Bio-Oss⁺자가골, Bio-Oss⁺동종골 사용에 대한 비교

찍기범, 유정아, 김상운
서울보훈병원 치주과

상악 구치부에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상악동의 Pneumatization 때문에 충분한 골량을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Maxillary Sinus를 거상하여 골의 양을 증가시키는 술식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명칭을 Maxillary Sinus Floor Elevation 혹은 Lift(이하 Sinus Lift)라고 명명하였다.

Sinus Lift는 1980년에 Boyne과 James가 처음 보고 하였다. 그들은 상악동 측벽에 Window를 만들어 상악동 점막을 상악동저에서 거상하여 거기에 만들어진 공간에 장골능에서 채취한 골을 잘게 분쇄하여 이식하였다.

Boyne과 James는 이식재로 자가골을 사용하였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이식재를 사용하였다. Smiler와 Homes는 과립상의 Porous Hydroxyapatite(HA)만을 골이식재로 사용하였고, Wood와 Moore는 자가골만을 사용하였다. Vassos와 Patrik은 환자를 3군으로 나누어 흡수성 HA, 흡수성 HA와 DFDBA, 흡수성 HA와 비흡수성 HA를 각각 이식재로 사용하였다.

이번 Case Report에서는 Boyne과 James가 보고한 Lateral Approach Method를 사용하였고, 두 명의 환자에서 한명은 Bio-Oss와 자가골 혼합하였고, 다른 한명은 Bio-Oss와 ICB(Irradiated Cancellous Bone)을 혼합하여 이식재로 사용한 후, 술 후 4개월째에 CT로 촬영하였다. 촬영된 CT는 (주)사이버메드에서 개발한 치과용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VimplantTM로 변환하여 이식부위의 3차원적 형태와 Hounsfield Scale로 골밀도를 분석하였다.